

한국에서의 마루야마 마사오 (丸山眞男) 사상·학문의 수용과 이해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1. 유산 (遺産) 과 기억 (記憶)

마루야마 마사오 (丸山眞男, 1914~96), 그는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학자, 지식인, 사상가로서 한국학계와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마루야마 정치학」, 「마루야마 사상사학」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역시 ‘일본 학계의 텐노오 (天皇)’ 내지 ‘마루야마 텐노오 (丸山天皇)’ 라는 구절이 더 많이 쓰여지고 있다. 한국에 소개된 일련의 일본의 지식인들¹ 중에서 단연 두드러진다.

그는 정치학과 정치사상사라는 전공 분야를 넘어서 한국의 인문,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 지식인, 사상가라 할 수 있다. 대표작 『日本政治思想史研究』는 한국정치사상사 연구와 방법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2차 대전 이전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 및 군국주의 분석과 비판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理」와 ‘억압이양 (抑圧移讓) 의 원리’, ‘무책임 (無責任) 의 체계 (体系)’ 등은 상식처럼 되어 있다. 또한 그가 클래식 음악애호가이자 동시에, 문학과 예술에도 조예가 깊은, 문자 그대로의 ‘교양인 (教養人)’ 이었다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다.

주지하듯이 젊은 시절 그는 현실에 적극 참여하고, 발언하며 행동하는 현대 일본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성이었다. 전후 민주주의의 정신적, 이론적 지주이기도 했다. 하지만 만년에는 현실 참여와 발언, 저술 등을 ‘야점’ (夜店 : 일종의 부업), 일본 (정치) 사상사 연구를 자신의 본령, 즉 ‘본점’ (本店) 이라 하면서, 자신의 일본정치사상사 연구를 더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²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자면, 그는 한국인의 지식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자기 학문만 열심히 하는 일본의 많은 학자들, 혹은 에도 시대의 유학자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지식인 이미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적인 발언과 더불어 직접 행동하는 비판적인 지식인이라는 이미지에 가깝다.

게다가 그의 삶과 사상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매력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시절의 그에게는 근대적인 억압장치로서의 구치소와 군대 체험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군대경험은 여전히 강력한 체험으로 여겨지며, 구치소 체험은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세대, 특히 투옥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것이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는 1960년대 후반 전국투(全學共關會議) 운동권과 격심한 갈등도 겪기도 했다. 1980년대 한국에서도 운동권 학생들의 폭력적인 과격시위가 있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고뇌와 젊은이들을 향한 일갈(一喝) 역시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1990년대 중반부터 마루야마 마사오의 주요 저작들이 한국에 번역,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그와 더불어 지식인, 사상가로서의 그에 대한 연구도 진척되고 있다. 오로지 그를 주제로 삼은 국제 학술심포지움도 개최되었다. 특히 2014년 7월에는 그의 탄생 백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심포지움 〈마루야마 마사오와 동아시아 사상: 근대성, 민주주의, 그리고 유교〉 [丸山眞男誕生100周年記念國際學術會議 〈丸山眞男と東アジア思想: 近代性, 民主主義, そして儒教〉] 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학자들이 한 데 모여서 그의 사상과 학문을 둘러싸고 진지한 논의를 벌이기도 했다. “태어난 지 100년이 됐다는 이유로 일본인 학자를 기념하는 학술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³ 이었다.

2016년은 그가 타계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가 남긴 사상과 학문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적인 유산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적인 ‘유산’이라는 것과 오늘의 시점에서 어떤 현재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함의를 읽어내고 ‘기억’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사상과 학문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져 왔으며, 또 어떤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의 사상과 학문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시사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소개(紹介)와 수용(受容) 그리고 번역(翻譯)

1) 소개와 유학(留學)

마루야마 마사오의 사상과 학문이 한국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방 이후 일본에 유학한 제 1세대 유학생들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도쿄대학(東京大學) 법학부(法學部)에 유학한 박충석(朴忠錫, 1936~) 교수, 김영작(金榮作, 1941~) 교수, 최상용(崔相龍, 1942~) 교수가 그들이다.⁴ 그들의 일본 유학은 일본과의 국교정

상화 (1965)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유학생으로서의 그들은 당시 도쿄대학에서 이름을 날리던 마루야마 마사오의 수업을 듣고서 많은 지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⁵ 특히 박충석 교수의 경우 직접 마루야마 마사오의 지도를 받았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했다.⁶ 그는 마루야마 마사오 탄생100주년 기념강연회 (丸山眞男生誕100年記念講演會, 2014) 에서 「마루야마 마사오의 사회과학과 한국 (丸山眞男の社会科学と韓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⁷

하지만 그들보다 먼저 한국에서 마루야마 마사오를 ‘발견(發見)’한 학자들이 있었다. 1) 홍이섭 (洪以燮, 1914~1974) 교수와 2) 이용희 (李用熙, 1917~1997) 교수가 그들이다. 그 시기를 가늠해보자면 대략 1950년대로 여겨진다.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마루야마 마사오의 ‘동시대인 (同時代人)’이라 할 수 있겠다.

1960년대 초반 일본에 유학하려는 박충석 교수에게 홍이섭 (연세대) 교수는 마루야마 마사오 교수를 추천해주면서 거기 가서 사상사 연구를 하라고 권유해주었다. 홍이섭 교수의 전공은 한국사와 한국사상사 연구, 특히 그가 몰두해 독자적인 성과를 남기고 있는 분야는 다산 (茶山)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의 실학사상이다. 『정약용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한국연구도서관, 1959) 는 조선 후기의 실학 (實學) 을 집대성한 정약용의 사상에 대한 본격적이고도 종합적인 연구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조선 후기 새로운 흐름으로서의 실학, 주자학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실학이라는 명제는, 실은 필자가 보기에 『日本政治思想史研究』, 특히 첫 번째 논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용희 (서울대) 교수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로, 흔히 한국 국제정치학 분야를 개척한 학자로 평가 받고 있다. 대표작은 『일반 국제정치학』 (박영사, 1962) 과 『한국민족주의』 (서문당, 1977) 이다. 그는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시각이 아니라 내 땅, 내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제창하면서 주제적인 학문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⁸ 그는 또 예술, 특히 한국미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으며, 동주 (東州) 라는 아호 (雅號) 로 『韓國繪畫小史』 (서문당, 1972), 『우리 나라의 옛그림』 (박영사, 1975) 저작을 남기기도 했다. 예술 (미술) 에 대한 취향이나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은 마루야마 마사오와 비슷한 느낌을 안겨주고 있다. 더구나 ‘민족주의’ 부분에서는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上・下〉1956~57년) 을 이미 참조한 듯한 느낌마저 든다.

식민지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홍이섭 교수와 이용희 교수는 당연히 일본어를 읽고 말할 수 있었으며, 그런 만큼 같은 시대 일본의 학계나 지성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이용희 교수는 자신의 관심분야에 관련해서 유학중인 김영작 (1941~) 교수를 통해서 1960년대에 마루야마 마사오를 직접 만나서 몇 차례 얘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된다.⁹ 이렇게 본다면 『日本政治思想史研究』와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의 출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혹은 조금 늦게) 지식인들 사이에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번역 (翻譯) 과 수용 (受容)

내가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대학원 시절, 박충석 교수의 〈한국정치사상사〉 수업에서였다. 한국정치사상사라는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던 초년병 시절이었다. 철학사나 사상사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정치사상사, 특히 ‘방법론 (方法論)’ 과 관련해서 고민하던 시절에 그야말로 새로운 빛을 발견한 것과도 같았다.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日本政治思想史研究』를 항상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다.

‘어디건 간에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나라, 대학에 가서 1년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을 때, 필자가 선택한 것은 당연히 도쿄대학 법학부였다. 1년간의 짧은 유학이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짧았지만 훌륭한 선생님 [渡辺浩, 平石直昭] 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돌아온 후 지금까지 좋은 선생님들과 더 공부했으면 좋았을걸 하고 아쉬워한 적도 많았다. 내가 해야 할 분야는 ‘일본 (정치) 사상사’ 가 아니라 ‘한국 (정치) 사상사’ 라 자신을 달래기도 했다.

실은 1980년대부터 일본근대사,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루야마 마사오의 논문 혹은 저작의 일부가 번역되고 있었다. 아직 ‘저작권’ 이 확립되기 이전이었다. ‘완역’ 이 아닌데다 오류가 많은 번역이었다. 나로서는 일종의 공부 방법으로 마루야마 마사오의 저작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다목적의 일종의 ‘야점 (夜店)’ 을 열게 된 셈이었다. 나는 마루야마 마사오 저작의 번역자로 알려지기 시작했다.¹⁰ 그동안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 (완역) 한 주요 저작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은 한국어번역)

- ① 『日本政治思想史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52年 / 改訂版1983年) [한국어번역 1995]
- ②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上・下〉 1956~57年 / 合本増補版1964年 / 新裝版2006年) [한국어번역 1997]
- ③ 『日本の思想』 (岩波新書, 1961年, 改版2015年) [한국어번역 1998 ; 2012]
- ④ 『戦中と戦後の間 1936-1957』 (みすず書房, 1976年) [한국어번역 2012]
- ⑤ 『『文明論之概略』を読む』 (上中下, 岩波新書, 1986年) [한국어번역 2007]

- ⑥ 『忠誠と反逆——転形期日本の精神史的位相』(筑摩書房, 1992年/ちくま学芸文庫, 1998年) [한국어번역 1998]
- ⑦ 『丸山眞男講義録』(6, 7卷, 東京大学出版会, 1998~2000年) [한국어번역 2018 예정]

일본에서 출간된 순서에 따라 한국어 번역이 나온 것은 아니다. 역시 한국의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본격적인 저작 번역이 1995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1995년이라는 시점은 한국으로서는 해방 5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에 해당하는 해이다.

왜 그제서야 완역이 나오게 되었을까.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어떻게 해서 필자가 마루야마 마사오 저작 번역을 하는 영광을 떠안게 되었을까. 우선, 전반적으로 한국학계에서는 서구, 특히 미국과 유럽 지향성이 강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특히 미국이 지식과 학문의 본고장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일본학계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과 폄하. 식민지 지배와 친일파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일본과 일본학에 대한 관심은 어학과 문학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셋째, 한국학계의 ‘번역’ 작업을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번역에 대해서 제대로 의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어의 경우, 식민지 시대에 대학, 전문학교를 다녔던 세대에 의해서 간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¹¹ 서양 서적의 경우 일본어 번역을 참조해서 번역하는 ‘중역(重訳)’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아무튼 마루야마 마사오 학문의 본령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①『日本政治思想史研究』의 번역은 학계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5세 때의 작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저작을 통해서 보여준 지적인 깊이와 폭이 그러했다. 이어 ②『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은 한길사(Hangilsa) 그레이트 북스(Great Books)의 한 권(022)으로 자리잡았다.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이라는 구절을 내세운 시리즈에 일본인 학자의 책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영어판 [Thought and Behavior in Modern Japanese Politics]의 서문까지 번역해서 실었다. 『조선일보』서평란에서 크게 다루어(1997년 4월 4일자), 한국의 의식 있는 독자들 사이에 마루야마 마사오를 알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③『日本の思想』은 판형을 바꾸어 두 번에 걸쳐서 간행되었다. 1998년에는 Culture Books의 한 권으로, 그리고 2012년에는 Ideal Library(이상의 도서관) 시리즈에 포함되었다(44). 그 책에는 부끄럽지만 내가 마루야마 마사오의 부음(訃音)[1996년]을 전해 듣고서 썼던 추도문 [마루야마 마사오의 삶과 사상을 생각함—그의 부음에 부처]도 실려 있다. ④『戦中と戦後』

の間 1936-1957』은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번역, 제작지원을 받았다(출판사는 휴머니스트). ⑤『忠誠と反逆——転形期日本の精神史的位相』은 박충석 교수와의 공역으로 출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번역지원을 받았다[번역총서 224]. 출판사 나남(Nanam)은 호주(Australia) 시드니(Sydney)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출판협회에서 한국출판사로서는 처음으로 번역도서출판 은상을 받았다(1999年). ⑥『丸山眞男講義録』(6, 7 권)은「동아시아 인문도서 100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길사(Hangilsa)에서 간행될 예정이다. 번역 작업은 이미 끝났다.

3. 심화(深化)와 연구(研究)

1) 연구와 심포지움

마루야마 마사오 저작의 번역과 더불어 학계는 물론이고 대학생,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읽히기 널리 시작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역시『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과『日本政治思想史研究』가 아닐까 한다. 지금도 꾸준히 읽고 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도 일본학자 중에 그런 대단한 사람도 있었구나, 조금은 놀랐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국에서 1945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세대는 반일(反日) 감정 탓이었는지 의도적으로 일본어를 배우지 않거나 읽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다. 가끔 그들로부터 번역을 통해서 잘 읽었노라는 인사를 받을 때가 가끔 있었다. ‘일본에 대한 재인식’이라 해도 좋겠다. 이 같은 흐름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역시 일기 시작한 ‘일본 알기’, ‘일본의 지식인 사회’에 대한 관심 역시 한 몫 했다고 하겠다. 그때까지 일각에 남아 있던 일본의 사상, 지식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역시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었다.¹²

이후 丸山眞男를 다룬 일본의 저작들이 번역, 소개되고 있다. 굳이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책도 없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아무튼 주목할 만한 책들로는 ①丸山眞男·加藤周一, 『翻訳と日本の近代』(岩波新書, 1998) [한국어번역 2000], ②荻部直, 『丸山眞男—リベラリストの肖像』(岩波新書, 2006) [한국어번역 2011], ③小林正弥編, 『丸山眞男論: 主体的作為, ファシズム, 市民社会』(東京大学出版会, 2003) [한국어번역 2013] 등을 들 수 있겠다.¹³ 마루야마 마사오를 이해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다.

아직까지 마루야마 마사오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서나 단행본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사상과 학문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역시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 역시 한 출판사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았다. 이하에서는 마루야마 마사오 연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인으로 교토대학(京都大学)에 유학, 마루야마 마사오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노병호(魯炳浩) 박사가 있다. 논문 제목은 「吉野作造と丸山眞男 「民本主義」と〈永久革命〉, その交錯と分裂」(京都大学 人間・環境学研究所, 2006). 본격적인 연구자가 나온 셈이며, 그는 마루야마 마사오 관련 논문들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다.¹⁴

또 한 가지, 오로지 마루야마 마사오를 주제로 2013년과 2014년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는 점이다. 2013년 7월 4, 5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마루야마 마사오와 자유주의: 냉전시대를 산 지식인의 사상과 행동(丸山眞男と自由主義: 冷戦時代を生きた知識人の思想と行動)” (“Liberalist, Maruyama Masao: An Intellectual’s Thought and Behavior in the Cold War Period”)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심포지엄은 ‘아산 냉전자유주의(Cold War Liberalism) Project’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¹⁵ 마루야마 마사오에 관심을 가진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었다.¹⁶ 거기서 발표한 원고들은 수정을 거쳐 출판되었다.¹⁷

그 학술회의가 끝난 후, 마루야마 마사오 탄생 100주년에 해당하는 2014년,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그의 학문과 사상을 생각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후원을 받아, 마루야마 마사오 탄생 10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丸山眞男誕生100周年記念国際学術会議) “마루야마 마사오와 동아시아사상: 근대성, 민주주의, 그리고 유교(丸山眞男と東アジア思想: 近代性, 民主主義, そして儒教)”라는 타이틀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7월 24-25일). 마루야마 마사오에 관심을 가진 한국과 일본의 학자, 연구자들이 많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제1세대’ 일본유학생에서 최근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거의 망라하는 상황이었다.¹⁸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다.¹⁹ 발표된 논문들을 수정을 거쳤으며,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에도 보도되었다.²⁰

2) 비판(批判)과 논란(論難)

학문적인 깊이와 폭, 제 2차 세계대전 전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에 대한 비판, ‘책임’ 있고 양심적인 주체의 형성,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그가 펼친 다양한 활동 등에 힘입어 많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지만 오로지 예찬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해서 비판과 논쟁을 비켜갈 수는 없다. 오히려 비판과 논쟁을 통해서 사상과 학문의 극복/계

승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루야마 마사오 신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판과 논란이 뒤따랐으며, 의도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 케이스도 없지 않았다. 굳이 왜 저런 책이 나와야 하는가 하는 번역, 소개도 없지 않았다. 자체 연구가 미진하다면 그래도 일본에서 정평 있는 저작들이 번역 되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

이하에서는 오늘날 한국에서 마루야마 마사오를 둘러싸고서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① 사상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법과 관련해서 주자학적 사유의 해체와 근대적 사유의 형성 문제. “학계 이외의 영역에서 일본정치사상사라는 장르가 비로소 시민권을 얻었다는 생각입니다 (学界以外の領域で日本政治思想史というジャンルが初めて市民権を得た思いです).” <일본정치사상사 연구에 있어서 다대(多大)한 업적(受賞理由)을 인정받아 1985년도 아사히상(朝日賞)을 수상한 직후(1986년 1월), 자신의 소감을 적은 글에 붙인 타이틀이다.²¹ 한국정치사상사를 공부하는 필자로서는 과연 한국에서는 어떠한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런 발언이 무척 부러웠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日本政治思想史研究』를 통해서 주자학적 사유의 해체와 근대적 사유의 형성이라는 명제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이미 일본학계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에도 소개되었다.²² 때로는 한국에서는 되풀이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느낌을 더러 받기도 한다. ‘번호’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日本政治思想史研究』 영어판 서문 등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자 자신의 오류나 그 당시의 시각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② ‘근대주의자’ 내지 ‘국민주의’ 자라는 비판. 흔히 그는 ‘해체되어야 할 국민주의자’로 지목 당하기도 한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학문에서 ‘근대성’과 ‘국민국가’ 형성은 주요한 주제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특히 서세동점(西勢東漸)과 제국주의 시대에 비서구 지역에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은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는 사안이었다. 시대적인 현안이었다. 일본은 유일하게 그 같은 근대화에 성공한 사례로 여겨져 왔다. 동시에 일본의 근대화에는 일정한 단계 이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어느 측면에 주목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 할 수도 있겠다.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그 같은 시각에 대해서 ‘탈근대(脱近代)’, ‘탈국민(脱国民)’, Post-Modernism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 역시 한편으로는 자연스럽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²⁴ 『日本の思想』를 자세히 보면, 그는 서구의 근대 체험을 절대화하기 보다는 하나의 방법 내지 준거(準拠)로 택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는 ‘전근대’와 ‘초근대’의 중첩 혹은 ‘비근대’와 ‘과근대’의 동시적 존재야말로 일본 사회의 특성이라 간파하기도 했다.

③ ‘근대’, ‘국민국가’와 관련해서 서구의 근대와 국민국가 (nation state)를 이상화시킨 ‘결여론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연장선 위에서 ‘서구중심주의’ (Eurocentrism)와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 더 구체적으로는 ‘일본적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주의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²⁵ ‘일본주의자’와 견강한 ‘내셔널리스트’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국민국가로서의 일본’을 자명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런 시각에서 조선 등 다른 아시아 지역을 바라보았다는 것이다.²⁶ 마루야마 마사오는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 ‘둔감’하거나 애써 ‘반성’하지 않았다는 식의 비판도 나와 있다. 또한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④ 최근 가장 두드러지는 비판은 마루야마 마사오가 후쿠자와 유키치 (福沢諭吉)에 대해 잘못된 인식 내지 해설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루야마 마사오가 『文明論之概略』을 읽은 만큼, 그리고 한국어 번역이 나와 있는 만큼 비판 역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침략’을 주장한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에 대해 마루야마가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해주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文明論之概略』을 다른 시각으로 읽는 저작도 번역, 소개되었다.²⁷ 후쿠자와 유키치의 아시아 인식에 대한 비판, 나아가서는 “‘마루야마 유키치’ 신화를 해체한다 (丸山諭吉) 神話を解体する)”는 부제 (副題)를 가진 책도 번역, 소개되었다.²⁸ 한국에서 ‘악명 높은’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자유주의자’라는 환상을 덮어씌우고, 오로지 입맛에 맞는 문구들만 주목해왔다고 신랄하게 가하는 비판은 한국인들의 관심을 끌만 한 것이다.²⁹ 주요 신문의 서평판에서도 크게 다루기도 했다.³⁰

⑤ 문화접촉과 변용 과정에서 외래사상을 ‘일본화’시키는 계기로서 되풀이해서 작용하는 사고 (思考)의 패턴을 중시해 마루야마 마사오가 구사한 개념들, 즉 「원형 (原型)」 (prototype) 혹은 「원형적 세계상 (世界像)」, 「고층 (古層)」 그리고 「집요저음 (執拗低音)」 (basso ostinato) 등³¹ 이른바 ‘고층’론 (‘古層’論)에 대한 비판,³² 일본사상사에 고유한 구조와 계기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의 선형적인 주관 [예컨대 ‘つぎつぎなりゆくいきおい’ 같은 것]을 역사와 사상에 대해서 투사 (投射)시킬 수 있는 위험도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³³

이들 외에도 마루야마 마사오 저작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도쿄재판 (東京裁判)에 대해서 그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함으로써 일본 파시즘과 지도층의 정신세계를 의도적으로 비틀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³⁴ 그의

사상과 저작을 둘러싼 학문적인 비판과 논란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마루야마 마사오 이해와 연구는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4. 반향 (反響) 과 거울 [鏡]

마루야마 마사오가 살았던 시대 (1914~1996) 는 20세기에서도 역사적 전환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동아시아 지식인들 중에서 동양과 서양의 만남 (융합),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상가였다. 뿐만 아니라 격동기를 살면서, 젊은 시절 자신의 ‘사상’ 에 따라 ‘행동’ 하기도 한 순수한 지성이기도 했다.

그는 명치유신 이후의 근대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전쟁의 시대를 직접 체험했으며, 그 같은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과감하게 분석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내셔널리즘과 초국가주의 사이의 연속과 단절에 통찰력도 그러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그가 남긴 유산은 큰 것이었다. 세세한 부분에서의 약간의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주장과 함의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반향’ (反響) 을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그가 주창했던 ‘개인’ 의 ‘주체의식’ 과 ‘양심’, 그리고 ‘책임’ 등에 대해서 나로서는 여전히 공감하는 편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하겠다.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는 유교적인 유풍에다 인적인 네트워크 (예컨대 혈연, 지연, 학연 등) 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중요한 ‘方法’ 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수용되는 이념이나 제도가 어느 순간 ‘한국화 (韓國化)’ 되는 경향 혹은 ‘한국적인 것들’ 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위해서 ‘집요저음 (執拗低音)’ (basso ostinato) 이란 범주 역시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에 대해서도 많은 점들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부단한 과정,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 즉 ‘영구혁명 (永久革命)’ 으로서의 ‘민주주의 (民主主義)’ 론을 들 수 있겠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개인’ 의 ‘주체성’ 과 ‘자유’ 를 돌아보지 않는 전체주의에 대해서 깊이 우려했다. 동시에 다수의 전제와 횡포 (Tyranny of the Majority), 그리고 민중주의 (民衆主義) 와 포퓰리즘 (populism)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려했다. 정치적 ‘주체’ 라는 측면에서 민중 (民衆), 대중 (大衆, the mass), 군중 (群衆, the crowd) 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체로서의 ‘개인’ 과 ‘시민’ 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생각한다.³⁵

그와 동시에, 그리고 반사적으로 궁급해지는 것은, 현재 일본사회에서 마루야마 마사오 사상과 학문은 어떤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지닐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인의 자기비판’ 으로서의 마루야마 마사오 사상은 현재 일본에서 어떤 의미와 적실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계승되고 있는가.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통해서 그 실상의 일단이나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최근 2, 3년 동안 일본은 국가진로와 관련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듯 하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정치 구도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웃나라들로서는 약간의 우려를 갖게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겠다. 역사수정주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집단적 자위권, (평화헌법) 헌법개헌 논의 등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제 2차 대전 이전 시대, “일본 역사의 어두운 골짜기” 내지 1930, 40년대의 ‘초국가주의’ 를 문득 떠올려보기도 한다.³⁶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격동의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마루야마 마사오의 사상과 학문은, 향후 일본의 국가진로를 설정해가는 가운데 스스로 비춰볼 수 있는 좋은 ‘거울’ 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랑스러운 지적인 유산을 그냥 지니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과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새롭게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억과 음미를 통해서 ‘현재화’ 시키는 작업이라 해도 좋겠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자기반성(自己反省)과 타자이해(他者理解)를 통해서 ‘혐한(嫌韓)’ 과 ‘반일(反日)’ 을 넘어서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³⁷

注

- 1 예컨대 竹内好 (1910-77), 吉本隆明 (1924-2012), 坂本義和 (1927-2014), 藤田省三 (1927-2003), 子安宣邦 (1933-), 安丸良夫 (1934-), 和田春樹 (1938-), 大江健三郎 (1935-), 柄谷行人 (1941-), 上野千鶴子 (1948-) 等.
- 2 「夜店と本店と一丸山眞男氏に聞く」, 1995, 『丸山眞男座談』 9.
- 3 『조선일보』 2014년 7월 24일.
- 4 김영작 교수는 일본 정부로부터 ‘旭日中綬章’ 을 받았으며 (2006년), 주일대사 (駐日大使) 를 지낸 최상용 교수는 ‘勳一等旭日大綬章’ 을 받았다 (2002년).
- 5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김영작, 최상용 교수는 특히 마루야마 마사오의 ‘내셔널리즘’ 연구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도쿄대 법학·정치학부 시절의 은사 중에는 일본에서 ‘내로라하는’ 저명한 교수가 많았다. 일일이 다 거명할 수는 없지만, 몇 분의 은사에 관해서만 간단히 언급해 두기로 하겠다. 일본정치사상사 전공의 마루야마 마사오 (丸山眞男) 교수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日本政治思想史研究』 (東京大

- 学出版会)를 비롯한 수십 권의 저서와 전후(戰後) 일본의 진로에 관한 정치평론집 및 ‘강의록’ 등을 통해 일본의 정신세계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명강의는 대학원 시절 나의 ‘병아리 학자’로서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김영작, “해방 후 1세대 일본 유학생의 회고”. 2015. 『일본비평』 12호 참조.
- 6 朴忠錫, 「丸山眞男先生を師として一私の学問の歩み」, 『丸山眞男手帖』 24. 2003.
 - 7 朴忠錫, 「丸山眞男の社会科学と韓国」, 『丸山眞男手帖』 69. 2014. 丸山眞男生誕100年記念講演会. 講演原稿.
 - 8 그는 ‘권역(圈域) 이론’ 과 ‘장(場)의 논리’ 로 불리는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정치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몽고 등 아시아 전역에 걸친 종교·지리·문명사 전반에 대한 해박한 학문적 조예와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
 - 9 朴忠錫, 「丸山眞男の社会科学と韓国」, 2014.
 - 10 金錫根, 「丸山眞男の著作の韓国語翻訳について」, 『丸山眞男手帖』 36, 2006 참조.
 - 11 예컨대 프랑스 문학자 정명환(鄭明煥) 교수(서울대 사범대)는 『思想界』 1968년 6월호에 「日本の思想—丸山眞男教授の論文を紹介한다」를 실고 있다. 거기서 마루야마 마사오와 『日本の思想』을 다루고 있다. 그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文明論之概略』을 번역하기도 했다.
 - 12 다음과 같은 기사를 들 수 있겠다. 「20세기 사상을 찾아서」 「마루야마 마사오의 정치학」, 『조선일보』 1999년 7월 22일; 「불멸의 저자들」 마루야마 마사오, 『조선일보』 2013년 8월 3일. 두 편 모두 의뢰를 받아 필자가 집필했다.
 - 13 ① 『翻訳と日本の近代』에 대해서는 필자가 『조선일보』서평을 썼으며, ③ 『丸山眞男論：主体的作為, ファシズム, 市民社会』은 필자가 직접 번역하기도 했다.
 - 14 예컨대 「‘사상 없는 사상’과 마루야마 마사오의 ‘사상’ - 전공투적인 마루야마 비판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日本思想』,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4; 「마루야마 마사오의 <영구혁명>론: 그 사상사적 계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13; 「일본의 민주주의와 1960년: 清水幾太郎와 丸山眞男」,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09; 「丸山眞男와 헤겔」, 『일본연구』, 2007. 03.
 - 15 냉전자유주의 프로젝트란 지난날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냉전’ 시대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말한다. 그 시리즈는 해당 사상가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평전을 번역, 출간하고 그 저자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으며, 또 그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시리즈에서는 Isaiah Berlin (1909~97), Michael Oakeshott (1901~90), Friedrich Hayek (1899~1992), Karl Popper (1902~94), Raymond Aron (1905~1983)을 다루었으며, 동아시아 사상가로는 유일하게 마루야마 마사오가 다루어졌다.

- 16 참석자들은 日本側：渡辺浩（法政大），飯田泰三（法政大），松田宏一郎（立教大），河野有理（首都大），荻部直（東京大），清水靖久（九州大），韓国側：金錫根（峨山政策研究院），金榮作（国民大），金弘宇（서울大），魯炳浩（韓國外國語大），朴忠錫（梨花女大），朴鴻圭（高麗大），李洪九（中央日報），崔相龍（高麗大）.
- 17 金錫根·荻部直編, 『丸山眞男와 自由主義：冷戰時代를 산 知識人の 思想과 行動』, 아산서원, 2014.
- 18 日本側：渡辺浩（法政大），大久保健晴（慶應大），河野有理（首都大），荻部直（東京大），杉田敦（法政大），米原謙（大阪大），都築勉（信州大），松本礼二（早稲田大），韓国側：金錫根（峨山政策研究院），金榮作（国民大），金弘宇（서울大），魯炳浩（韓國外國語大），朴忠錫（梨花女大），朴鴻圭（高麗大），李洪九（中央日報），崔相龍（高麗大），劉咄爛（慶熙大），姜東局（名古屋大），高熙卓（延世大），李基原（江原大），張寅性（서울大），李鍾殷（国民大），姜正仁（西江大），金鳳珍（北九州大），金永壽（嶺南大），李禮安（翰林大），裴柄三（靈山大）
- 19 第1セッション 日本儒学と近代性；第2セッション 江戸時代儒学と日本思想；第3セッション 近代日本と韓国認識；第4セッション 市民と政治そして民主主義. (제1세션 일본유학과 근대성, 제2세션 에도시대 유학과 일본사상, 제3세션 근대 일본과 한국인식, 제4세션 시민과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 20 일 군국주의 비판한 마루야마 재조명. “태어난 지 100년이 됐다는 이유로 일본인 학자를 기념하는 학술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사상가로 '학계의 덴노(天皇·천황)'라 불린 丸山眞男(1914~1996)의 탄생 100주년 기념 한·일 국제 학술회의가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경희궁1가길 아산정책연구원 강당에서 열린다. 마루야마의 직계 제자인 渡辺浩法政대교수 등 일본 학자 8명과 국내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주최.” 『조선일보』 2014년 7월 24일.
- 21 『朝日人』, 1986년 3월호, 『丸山眞男集』 16권 365페이지.
- 22 예컨대 渡辺浩 『近世日本社会と宋学』(東京大学出版会, 1985) [한국어번역 2007]
- 23 그 자신 중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한 부분과 근대화의 단일적 경로 등에 대해서 오류를 시인했다.
- 24 中野敏男, 『大塚久雄と丸山眞男 動員, 主体, 戦争責任』(青土社, 2001) [한국어번역 2005]; 子安宣邦, 『日本近代思想批判』(岩波現代文庫, 2003): 『近代知のアルケオロジー 国家と戦争と知識人』(岩波書店, 1996) [한국어번역 2007]; 李喜馥, 「丸山眞男의 近代化論과 脱近代」 『동양철학연구』 제52권, 2007.
- 25 강정인 (외), 「丸山眞男 政治思想에 보이는 西欧中心主義와 日本中心主義」, 『정치사상연구』 제14집 2호. 2008; 박홍규, 「丸山眞男와 日本主義」, 『정치사상연구』

- 제21집 2호, 2015.
- 26 宮嶋博史,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창작과 비평사, 2013.
- 27 子安宣邦, 『福沢諭吉「文明論之概略」精読』(岩波現代文庫, 2005) [한국어번역 2007.]
- 28 安川寿之輔, 『福沢諭吉のアジア認識: 日本近代史像をとらえ返す』(高文研, 2000) [한국어번역 2011]; 安川寿之輔, 『福澤諭吉と丸山眞男: 「丸山諭吉」神話を解体する』(高文研, 2003) [한국어번역 2015]
- 29 「至極当然のことですが, 丸山が「日本」の思想家である, という点です。そして日本国内ではあまり意識されない彼の「国籍」が, 韓国では極めて敏感に認識されるとことです。そのような韓国からの視線では, 侵略的な近代主義者福沢を偉大な思想家とし, 「福沢惚れ」を自認する丸山を見ると, 何か釈然としない感覚を覚えることになるわけです。趙星銀, 「韓国における丸山眞男」, 丸山眞男研究プロジェクト中間シンポジウム, 2014.
- 30 『조선일보』 2011년 4월 9일; 『동아일보』 2015년 7월 25일.
- 31 예컨대 歴史意識の‘古層’(1972); 思想史の方法を摸索して——一つの回想(1978); 日本思想史における‘古層’の問題(1979); 原型. 古層. 執拗低音—日本思想史方法論についての私の歩み(1984)
- 32 金善花, 「丸山眞男의 ‘고층(古層)’의 해석을 둘러싼 비판적 연구: 역사의식의 고층과 메시아적 시간」, 『일본문화연구』 제49집, 2014; 李喜馥, 「伝統思想と固有様式, そして日本思想: 丸山眞男の日本思想史方法論を素材として」, 『人文科学研究』第24輯, 2010; 魯炳浩, 「역사의식의 고층(古層)과 일본의 근대—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두 시간—」, 『일본연구』, 2008; 魯炳浩, 「丸山眞男における朝鮮論の古層」, 『社会システム研究』, 京都大学人間・環境学研究科, 2005.
- 33 김석근, 「丸山眞男의 고대 사상사 연구: ‘原型. 古層. 執拗低音’과 관련하여」, 〈丸山眞男と東アジア思想: 近代性, 民主主義, そして儒教〉, 発表論文, 2014.
- 34 김홍우, 「마루야마 마사오의 도쿄재판 논고」, 『한국정치현상학적 이해』, 인간사랑, 2007.
- 35 김석근, 「丸山眞男에서의 ‘個人’과 ‘市民’: ‘主体’와 관련하여」 참조, 金錫根·荀部直編, 『丸山眞男와 自由主義: 冷戰時代를 산 知識人의 思想과 行動』, 아산서원, 2014 収録.
- 36 김석근, 「集團的自衛權, ‘安保法案’處理, 그리고 市民社会: 安倍政權과 ‘平和憲法’은 어디로 가는가?」, 『오늘의 문예비평』 102호, 2016 참조.
- 37 한국에서 마루야마 마사오의 좋은 이해자이기도 한 이흥구(1934-) 교수(전 서울대, 현 『중앙일보』 고문)는 〈다시 읽는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 외국의 비판이나 충고에 따라 역사의식이나 국가 진로가 바뀌는 경우는 없다. 오직 국민 스스로의 고민, 토론, 성찰을 통해서만이 미래로 나아갈 길을 찾게 되는 것이다. 유난히 길고 사연이 많은 역사를 지닌 한·중·일 삼국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다. 한국은 물론 이웃 중국과 일본에서도 심각한 자성의 노력이 있을 것을 바라 마지 않는다. 모두가 대단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대국들이 아닌가. 60년 전 패전 후의 혼란과 침체 속에서 전개된 마루야마 마사오 교수의 냉정한, 그러나 진보적인 역사인식과 정치분석이 오늘날 얼마나 유효한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만이라도 그의 지성이 넘쳐흐르는 저서들이 많이 읽히기를 바르게 된다.” (『중앙일보』, 2013년 5월 13일).